

16세기 예천 지역의 학풍과 藥圃 鄭琢

정 우 락*

- I. 어떻게 다룰 것인가
- II. 16세기 예천의 시공간
- III. 강안학으로서의 예천 학풍
- IV. 정탁 학문의 강안학적 특성
- V. 요약과 남은 문제들

국문초록

본고는 16세기 예천 지역의 학풍과 약포 정탁의 학문을 다루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16세기는 사화기를 거치면서 사림파가 수난을 맞기도 했지만, 이러한 험난한 경험을 통해 이들의 사상은 오히려 예각화될 수 있었다. 예천은 낙동강 본류가 시작하는 그 연안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가산과 내성천 등의 산수를 거느리며 유교문화를 만들어 갔다. 정몽주의 제자인 호명의 조용, 조용의 제자인 보문의 윤상으로 이어지는 성리학 계보를 만들며 예천의 성리학은 본격화된다. 이황이 조용과 윤상을 들어 “성리의 연원은 알기가 쉽지 않은데, 예천은 두 공의 이름을 일컫고 있네.”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의 발언이다.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jwl0412@knu.ac.kr

강안학은 회통성, 실용성, 독창성이라는 학문 특성을 지닌다. 이 가운데 예천 지역은 회통성과 실용성이 강조되고 독창성은 비교적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황의 친인척이 있고, 그의 제자들이 세거 혹은 유입되기도 하지만 예천에서는 퇴계학을 천착하며 이기심성론을 깊게 받아들여 탐구한 흔적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16세기 예천의 강안학을 대변하는 유교 지식인은 정탁이다. 그 역시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는 독창성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황과 조식의 제자가 되면서 퇴남학의 회통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高坪洞契의 <勸勉條>와 <禁制條>에서 보여준 구체적 사례와 임진왜란 과정에서 보여준 실무역량은 정탁 학문의 실용성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이라 하지 아닐 수 없었다.

◆ 주제어

16세기, 예천 지역, 약포 정탁, 낙동강 연안, 성리학적 계보, 강안학, 실용성, 고평동계

I. 어떻게 다를 것인가

본고는 시간적으로는 16세기, 공간적으로는 예천 지역, 학문적으로는 유학, 인물로는 藥圃 鄭琢(1526-1605)을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¹⁾ 16세기는 지난 세기말의 무오사화(1498)를 거쳐 갑자사화(1504)와 기묘사화(1519)와 을사사화(1545)로 이어지는 사화, 그리고 정여립의 난(1589)과 임진왜란(1592)으로 이어지는 내외 전란으로 인해 조선의 운명이 그야말로 풍전등화 속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李滉(1501-1570), 曹植(1501-1572), 奇大升(1527-1572), 李珥(1536-1584) 등 기라성 같은 유교 지식인들이 나타나 불안한 당대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조선의 사상계를 주도해 나갔다. 이로써 조선의 유학사상사는 일대 혁신을 이룩할 수 있었다.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정탁 또한 그와 같은 주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동안 예천으로 지역을 한정하고 유학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표적인 논문은 두 편이 있다. 황위주의 「예천지역의 퇴계학맥」²⁾과 장운수의 「예천지역 성리학계의 지형도」³⁾가 그것이다. 앞의 논의에서는 예천 지역 퇴계문인의 현황과 함께 문인집단의 주요 특징을 다루었고, 뒤의 논의에서는 16-7세기를 중심으로 예천 지역 성리학계의 인문환경과 대표적인 성리학자들을 소개하였다. 이들 논의에서는 權文海와 鄭琢을 특별히 주목하면서, 사변적인 논변보다 성리학적 가르침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하고자 했던 부분을 주로 부각했다.

이 가운데 정탁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정탁이 임진왜란이라는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으며,

1) 이 논문은 “정간공 약포 정탁선생 탄신 제498주년 기념학술대회(2024.5.25.)”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2) 황위주, 「예천지역의 퇴계학맥」, 『퇴계학과 유교문화』 28,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0.

3) 장운수, 「예천지역 성리학계의 지형도」, 『퇴계학과 유교문화』 59,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6.

이것이 문학적으로 또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었다.⁴⁾ 다른 하나는 정탁의 성학과정과 그의 유학사상사적 성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⁵⁾ 이밖에도 정탁의 시세계와 함께 창작 기법의 일환으로서 用事의 측면을 다룬 연구도 있었다.⁶⁾ 이들 논의가 정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긴요한 것이기는 하나, 대체로 정탁의 특정 부분을 부각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본 논의는 한편으로 기존에 거둔 연구성과를 수렴하고, 다른 한편으로 낙동강 연안 지역의 학문을 의미하는 이른바 ‘洛岸學(이하 江岸學으로 범칭한다)’적 측면에서 접근하기로 한다. 이것은 예천이 낙동강 본류가 시작되는 곳인 동시에 그 연안에 위치한다는 지정학적 측면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⁷⁾ 『東輿備考』 등의 고지도에서 확인되었듯이 예천은 풍기, 문

-
- 4) 이 방향에서 논의된 업적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박익환, 「약포 정탁의 생애와 임란극복 공적」, 『진주문화』 17, 진주교육대학교 부설 진주문화권연구소, 2003 ; 박근노, 「약포 정탁의 문학에 나타난 우국의식: 상소활동과 임란체험의 시적 형상화를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정해은, 「임진왜란기 약포 정탁의 군사 활동과 전쟁기록」, 『이순신연구논총』 22,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4 ; 황만기, 「정탁의 병법 수용 양상 연구」, 『영남학』 25,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4 ; 정병호, 「약포 정탁의 현실인식과 대응-『약포집』 소재 상소문을 대상으로」, 『동양예학』 31, 동양예학회, 2014 ; 김원준, 「임란기 전란 극복을 위한 약포의 대응 방식-임란기 산문을 중심으로」, 『약포 정탁』, 예문서원, 2016 ; 강문식, 「임진왜란기 정탁의 대명 외교 활동」, 『약포 정탁』, 예문서원, 2016 ; 김정운, 「정탁의 『용사일기』와 왜란 극복 활동」, 『약포 정탁』, 예문서원, 2016 ; 최고경, 「약포(藥圃) 정탁(鄭琢)의 전쟁시를 통한 임진전쟁에 대한 인식분석」, 『군사』 11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1.
- 5) 이 방향에서 논의된 업적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김낙진, 「16세기 남명학과(南冥學派)의 정주학(程朱學) 수용양상 ; 약포(藥圃) 정탁(鄭琢)의 정주학(程朱學) 수용 양상」, 『남명학연구』 24,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7 ; 추제협, 「약포 정탁의 삶과 철학」, 『약포 정탁』, 예문서원, 2016 ; 권경열, 「약포 정탁의 교유관계와 학문 형성 배경」, 『약포 정탁』, 예문서원, 2016 ; 김경수, 「남명학과와 퇴계학과 사이의 정탁」, 『약포 정탁』, 예문서원, 2016.
- 6) 이 방향에서 논의된 업적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여운필, 「약포 정탁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6, 한국학사학회, 2001 ; 진갑곤, 「약포 정탁 시에서의 用事 활용 양상연구-경서를 중심으로」, 『국학연구논총』 32, 태민국학연구원, 2023.
- 7) 소백산에서 발원하여 용궁의 回龍浦를 감돌아 흐르는 乃成川과 四佛山과 雲達山에서 발원하여 문경군 산북면과 산양면을 거쳐 흐르는 錦川이 태백산에서 발원한 낙동강과

경, 용궁, 상주, 의성 등과 함께 상주권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낙동강 연안에 위치한 중류의 대구권과 하류의 부산권과 비교해 볼 때, 이 지역은 강안학적 보편성을 지니면서도, 예천 지역이 지닌 특수성을 보인다.

예천 지역은 낙동강 700리설을 기준으로 낙동강의 상류에 위치한다. 이러한 지정학적 측면은 지리와 인간의 관계인 人地關係를 고려할 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리 공간과 인간 활동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주목하면서 본고에서는 16세기 예천이라는 시공간을 먼저 다루고, 이어서 강안학적 측면에서 본 예천의 학풍, 그리고 정탁의 학문이 지닌 강안학적 특성을 순서대로 탐구하고자 한다. 이로써 16세기 예천 지역의 학풍과 정탁의 학문은 강안학적 측면에서 새로운 시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II. 16세기 예천의 시공간

역대로 예천은 水酒, 甫州, 基陽, 清河, 襄陽 등으로 불렸으며, 신라시대에 들어와 지금의 예천읍은 水酒郡, 용궁면은 淸山縣이 되었다. 고려 시대에는 축산현을 龍宮郡으로 고쳐 상주목에 소속시켰으며, 임진왜란 이후에는 예천군과 용궁군으로 편제하여 안동부에 소속시켰다. 근대 이후 부·군·현의 통폐합에 따라 용궁군을 병합(1914)하여 예천군 10면의 성립을 보게 된다. 현재의 예천군은 1읍 11면이다. 여기서 우리는 예천이 상주와 안동 사이에 존재하면서 고려조에는 상주 지역, 조선조에는 안동 지역과 일정한 연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仁智를 바탕으로 하는 공자의 山水意識에서 보듯이 유교 지식인들은 ‘산수’를 지극히 중시한다. 산수를 중심으로 이들의 학문과 생활이 영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천 주위의 산부터 보자. 읍기의 동쪽

합류하는 지점이 三江이다. 이렇게 낙동강 분류가 시작되고,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 상주 사별면 퇴강리에 이르면 비로소 낙동강 700리가 시작된다.

은 鶴駕山과 走馬山, 서쪽은 國師峰과 龍門山, 남쪽은 乾芝峰과 羅浮山, 북쪽은 妙積峰과 子求山, 중앙은 望月峯과 芙蓉峯 등이 솟아 있다. 그리고 물은 그 사이로 흘러 乃城川, 洛花巖川, 龍角川, 漢川, 箕川, 錦川 등을 이루며 낙동강으로 흘러든다. 이러한 산수 사이에 다양한 촌락이 발달하면서 유교 지식인들은 성리학적 사유체계를 형성했고, 학문 혹은 문학을 통해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표출하였다.

『竺山勝覽』이나 『醴泉郡誌』 등 예천의 지방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선비들은 예천의 산수를 거닐면서, 때로는 점으로 된 集景詩를, 때로는 선으로 된 구곡시를 남겼다. 후대의 것이기는 하나 작자 미상의 襄陽八景⁸⁾과 權訪(1740-1808)과 宋相天(1766-1804)의 水落臺九曲이 대표적이다.⁹⁾ 양양팔경은 <鶴駕朝旭>, <豈頭歸雲>, <漢水漁火>, <柳汀牧笛>, <松浦耘歌>, <西庵暮鍾>, <峴山落照>, <松臺霽月>이고, 수락대 구곡은 <觀魚臺>, <聽澗亭>, <江南曲>, <南山陲>, <虹橋>, <石門塢>, <石出臺>, <水落臺>, <登瀛谷>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예천은 하나의 거대한 유교문화경관으로 재탄생하였다.

그렇다면 16세기는 어떤 시대인가. 이 시기의 역사적 현실은 정치적으로 훈구파의 사림파에 대한 탄압을 의미하는 사화가 일어나 현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남북에서 이민족이 끊임없이 침입하였다. 사회적으로는 잦은 부역과 공물이 천재지변과 겹치면서 민중들이 사방으로 이산하게 되었고, 지방의 수령들은 관권을 이용하여 민중의 토지를 침탈했으며, 이에 견디지 못한 민중은 저항하였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위기적 현실을 외면한 채 理氣性命 등 형이상학적 이론 위주의

8) 이밖에도 삼강 일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鄭必奎(1760-1831)의 강촌육경, 즉 <靑山曉霧>, <白石暮煙>, <馬嶺春花>, <西壁晚風>, <後堤遠望>, <山洞別庄>이 있으며, 다시 2경(<淸沙繫舟>, <東山望月>)을 보태 <강촌팔경>이 된다. 이는 정필규의 증손 鄭夏洛에 의해 <강촌십팔경>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9) 구곡은 이밖에도 예천군 상리면과 하리면 일대에 설정된 殷山九曲과 지보면 마산리 일대에 설정된 三江九曲이 있다. 은산구곡은 일곡에서 구곡까지 곡 수를 새겨두었으며, 삼강구곡은 <浣潭>, <閣氏巖>, <山幕齋>, <三湖亭>, <沙林>, <三江>, <靑島>, <白石亭>, <龍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문에만 골몰하였다. 성리학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유학 본연의 현실을 위한 학문은 요원해지고 말았던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16세기의 예천은 사림파의 성장과 퇴계학파의 확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성종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인물조에는 고려조의 예천 인물로 林民庇, 林宗庇, 林椿, 林支漢, 林惟正이, 조선조의 인물로는 예천의 權孟孫·尹祥, 용궁의 趙岬·琴柔가 실려 있으며, 1392년(태조 1) 예천에서 귀양살이한 趙庸도 실려 있다. 특히 윤상에 대하여, “縣의 아전으로서 급제하였다. 학문이 정밀하고 깊었으며, 남을 가르치는 데 게을리하지 않았다. 16년간이나 성균관 대사성을 지냈으며, 벼슬이 예문관 제학에 이르렀다. 나이 78세가 되어서 고향에 退老하니, 배우는 자가 구름처럼 모여 들었다. 83세에 졸하였으며 近代에 가장 뛰어난 儒學의 스승이었다.”¹⁰⁾라고 하였다. 윤상으로부터 예천 유학이 본격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용(?-1424)¹¹⁾ 또한 주목할 만한 예천의 유학자다. 그가 정몽주의 문인이라는 점을 특기할 필요가 있다. 조용은 고려 恭讓王 때의 사관으로 조선조에서는 禮儀判書에 이르렀다. 예천에 귀양을 와서 趙末生, 尹祥, 裴桓과 裴杠 형제 등을 배출한다. 이렇게 하여 자연스럽게 조선유학의 조종인 정몽주로부터 호명의 조용, 보문의 윤상으로 그 학맥이 흐르게 되었고, 金叔滋가 윤상의 제자가 되면서 金宗直에게로 학맥이 이어진다. 이를 인식하면서 이황은 조용과 윤상이 明經行修로 뛰어났다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기렸다.

性理淵源不易明	성리의 연원은 알기가 쉽지 않은데
襄陽稱道二公名	예천은 두 공의 이름을 일컫고 있네
如何著述無傳後	어찌하여 저술이 후대에 전해지지 못했던고
仰止高山獨感情	높은 산처럼 우리름에 홀로 마음이 북받치네 ¹²⁾

10)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4, 慶尙道 예천군, 인물조.

11) 이에 대해서는 추제협, 「송정 조용의 삶과 학문적 위상」, 『정간공 약포 정탁선생 탄신 제498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2024.5.25.)을 참조할 수 있다.

이 시는 이황이 지어 그의 문집인 『퇴계집』에 전한 것이지만, 여기에 기반하여 『영남인물고』 조용 조, 윤상의 『別洞集』 <聞見錄>, 柳致曄의 『東林集』 <次松亭韻>, 申弼欽의 『泉齋集』 <遊松亭詩後記> 등에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다. 이것은 이 작품이 선비사회에서 많이 회자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황은 여기에서 조용과 윤상이 남긴 문헌이 부족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들이 성리학의 연원과 일정한 맥락이 닿아 있다고 보았다. 이들의 도맥이 김숙자와 그의 아들 김종직, 김굉필과 정여창, 그리고 조광조와 이언적 등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결과일 것이다.

김숙자의 제자로는 감천 사람 文敬全이 있고, 김종직의 제자로는 개포의 辛守, 용문의 權五紀(1463-?)와 權五福(1467-1498) 형제, 호명의 李珖, 용산의 李文佐가 있다. 그리고 1497년 예천군수를 지낸 밀양사람 朴漢柱도 있어 학맥의 지역적 전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권오복은 1598년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향리에서 잡혀 올라가 동문인 金駟孫 및 權景裕 등과 함께 처형되었다. 형 권오기 역시 이에 연루되어 해남으로 귀양을 갔다. 이 과정에서 예천은 자연스럽게 사림과의 의리정신에 입각한 실천유학으로 새롭게 부각되었으며, 權山海(1403-1456)와 朴審間(1408-1456), 文瑾(1471-?) 등도 강고한 사림파적 기질로 예천 지역의 유학정신을 드높였다.

16세기를 전후하여 기호학이 남하하고 남명학이 북상하기도 하지만, 주로 인근의 퇴계학이 수용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용궁이 안동부에 소속되었던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陶山及門諸賢錄』(1997)과 권오봉이 편찬한 『陶山弟子便覽』을 바탕으로 조사한 황위주의 논의 및 김시우가 편찬한 『예천유학사』의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예천 지역 이황의 제자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권오봉은 『도산급문제현록』에 수록되지 않은 宋遺慶 및 그의 아들 宋汝能과 宋汝沃 등 3인을 발굴하여 예천문인에 추가하였고, 김시우는 『예천군지』(2005) 등을 참고하여 鄭惟

12) 李滉, 『退溪集』 권4, <郡人尹祥·趙庸二公, 皆明經授徒, 惜無著述, 後來無徵爾.>

一, 朴寬, 朴士憲 등 3인을 추가하였다. 이렇게 보면 예천 지역 이황의 문인은 도합 29인이 되는데,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순번	성명	자/호	생몰연대	비고
1	朴士憲	德明/墨齋	1508-1588	예천 반룡
2	李完	子固/企菴	1512-1596	龍門 上金谷, 이황의 중형 李河의 아들
3	朴寬	剛中/孤岩	1515-?	知保
4	李宏	大容/?	1515-1573	호명 백송, 이황의 중형 李河의 아들
5	李宓	子昂/?	1520-1545	호명 종산, 이황의 형 李濯의 아들
6	李冲	思舉/古庵	1520-1591	호명 종산, 이황 숙부 李隅의 손자
7	李愈	子欽/梅村	1521-1593	호명 송곡
8	金八元	純舉/芝山	1524-1569	甘泉 美石, 아버지가 안동에서 이거
9	鄭琢	子精/藥圃	1526-1605	예천 고평, 17세에 급문
10	李令承	彦述/東巖	1527-1605	虎鳴 黃池, 이우의 손서, 이충의 차남
11	李憲	子修/栗里	1532-1592	호명 송곡, 이유의 동생
12	李中立	强仲/龜溪	1533-1571	知保 大竹, 조부 李善童이 서울에서 이거
13	權文海	灝元/草澗	1534-1591	龍門 竹林
14	朴蕓	彦秀/病柏堂	1535-1595	龍門 上金谷, 권문해 둘째 부인이 박운의 질녀
15	李宗道	士元/芝澗	1535-1602	龍門 上金谷, 이완의 아들, 이황의 종손자
16	李應	子期/訥軒	1536-1597	호명 송곡, 이유와 이희의 동생
17	李閔道	靜可/遇巖	1538-1591	호명 백송, 이황의 종손자, 이평의 아들
18	宋福基	德久/梅圃	1541~1605	예천 고평, 이황의 생질 辛弘祚의 사위
19	金復一	季純/南嶽	1541-1591	龍門 龜溪, 권문해의 차남
20	安克誠	?	1541-?	龍宮
21	張謹	而信/潛齋	1544-1619	예천 동본
22	全纘	景先/四友堂	1546-1612	龍宮 竺山, 시로서 이름이 알려짐

23	鄭惟一	子中/文峰	1553-1579	知保
24	李揆道	宜伯/?	1557-?	호명 종산, 이황의 재종손, 이충의 아들
25	辛弘祚	而慶/伊溪	?-?	예천 고평, 이황의 생질, 송복기의 장인
26	辛乃玉	啓而/一竹齋	?-?	甘泉 美石, 巖棲軒으로 찾아가 이황에게 급문
27	宋遺慶	?	?-?	이황의 姪壻, 이황의 중형 李河의 둘째 사위
28	宋汝能	?	?-?	송유경의 아들
29	宋汝沃	?	?-?	송유경의 아들

무엇보다 이황의 어머니 춘천박씨의 집안이 지금의 예천군 지보면 대죽리에 있었고, 이에 따라 이황의 친인척이 다양하게 이 지역에서 세거 혹은 이주할 수 있었다. 예컨대, 이황의 형인 李瀼의 아들 李宓(조카), 이복형 李河의 아들 李宏과 李完 형제(조카), 이평의 아들 李闕道(종손자), 이완의 아들 李宗道(종손자) 등이 모두 예천의 용문과 호명에 거주하면서 이황의 집안으로서 퇴계학단을 이룩하였다. 이밖에도 호명의 李忠(당질)과 李揆道(재종손), 그리고 李승承(종질서) 등이 있어, 예천 지역에 이황 집안으로서 한 학맥이 이룩되고 있었던 것이다.

예천권씨 권문해 집안, 용궁전씨 전찬 집안, 청주정씨 정탁 집안은 예천에 세거하였지만, 이완과 이종도 등은 예안에서, 김복일과 김팔원 등은 안동에서 이거해 왔다. 신흥조와 송복기 등은 영주와 함창에서, 이중립과 이유 등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이거해 왔다. 그리고 이들의 이거는 신흥조와 이종도 등은 조부 때, 이유와 이회 등은 부친 때, 이충과 이복 등은 당대에 예천으로 이거했고, 예천의 고평·동본, 호명의 송곡·종산·황지, 용문의 금당실 등에 두루 살면서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퇴계학을 탐구하였다.¹³⁾ 퇴계학이 구체적으로 전해지는 현장을 우리는 다음 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3) 이주 문인의 시기별 현황과 지역별 현황 등에 대해서는 황위주, 앞의 논문, 28-29쪽에 정리되어 있다.

松老高臺插翠虛	노송 속 높은 누대 푸른 하늘에 우뚝하고
白沙靑壁畫難如	흰 모래 푸른 벽은 그려내기 어렵구나
吾今夜夜憑仙夢	내 지금 밤마다 선몽대에 의지하나니
莫恨前時趁賞疎	지난번 가서 감상하지 못함을 한하지 않으리 ¹⁴⁾

先生仙夢已成虛	선생의 선몽대는 이미 폐허가 되었지만
追誦遺詩拜謁如	남긴 시를 되새겨 외우니 배알하는 듯하네
書法至今應似昨	서법은 지금도 응당 어제 쓴 것 같으니
分明字密又行疎	조밀한 글자에 성긴 행간 분명하구나 ¹⁵⁾

일찍이 이황은 예천군 호명면 백송리 소재의 仙夢臺에서 시를 지은 적이 있다. 앞의 시가 그것이다. 선몽대는 조우인의 장인 이열도가 1563년(명종 18)에 건립한 것인데, 이열도는 이황의 손자이자 이평의 아들이다. 뒤의 시는 정탁이 1599년(선조 32) 曹友仁(1561-1625)의 부탁으로 지은 것인데, 5수 중 첫 번째 작품이다. 정탁은 여기서 이황이 지은 앞의 시를 통해 스승을 배알하는 듯하다고 했다. 전·결구에서 서법을 제시한 것은 ‘선몽대’라는 글씨가 이황이 쓴 것이기 때문이다. 조우인은 예천에서 출생하였고, 이후 1621년 제술관으로 있으면서 광해군의 잘못을 비판하여 3년간 투옥되었다가, 인조의 등극으로 상주의 매호에 은거하여 여생을 마친 인물이다. 우리는 여기서 퇴계학이 상주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예천에 유입된 퇴계학맥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에는 유교 지식인들이 다양하게 포진하고 있었다. 16세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뛰어난 학행으로는 鄭允穆(1571-1629, 풍양), 金光曄(1561-1610, 우곡), 鄭允該(1553-1618, 용문), 權旭(1550-1612, 맞질), 鄭彦宏(1569-1640, 지보), 李潤壽(1545-1594, 무이) 등이 있었고, 유일로는 全仁(1502-1557, 가야), 蔡有光(1496-1534, 용궁), 李應(1536-1597, 송곡), 邊應寧

14) 李滉, 『退溪集』 권1, <寄題仙夢臺>

15) 鄭琢, 『藥圃集』 권1, <敬次仙夢臺 退溪先生韻, 示曹汝益> 其一.

(1518-1586, 금곡), 尹涉(1550-1624, 신평), 孫興智(1566-1619, 황지), 鄭沚(1563-1642, 풍양), 鄭榮後(1569-1641, 풍양), 權滌(1571-1635, 호명), 趙貫(1573-?, 감천), 李伯明(1572-1622, 용궁), 鄭允偉(1564-1629, 고평) 등 다양한 유교 지식인들이 있다.¹⁶⁾ 이들 역시 이황과 직간접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천의 유학을 심도있게 하였다.

안동과 상주 사이에 위치한 예천은 학가산과 내성천 등의 산수를 거느리며 유교문화를 만들어 갔다. 이 지역이 사림과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호명의 조용이 조선유학의 조종인 정몽주의 제자가 되면서, 정몽주→조용→윤상의 학맥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황은 이를 엄두에 두면서 조용과 윤상을 들어 이 지역 성리학의 연원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황의 학맥이 예천 지역으로 전승되면서 예천의 퇴계학단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근 상주 등의 지역으로 퇴계학이 전파되는데, 이황의 선몽대 시 창작과 정탁이 여기에 차운해 상주의 조우인에게 준 것은 중요한 증좌가 된다. 예천이 지닌 지정학적 위치로 보아 당연한 결과이다.

Ⅲ. 강안학으로서의 예천 학풍

강과 그 연안의 문화가 개울이 지닌 구심력과 바다가 지닌 원심력 사이에서 존재하므로, 강을 중심으로 한 차안과 피안은 引力과 斥力을 동시에 지닐 수 있었다. 이는 오랫동안 동양사상과 존재론을 지배해 왔던 陰陽待對論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즉, 음과 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협동하고 다르기 때문에 경쟁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음양은 스스로 같기 때문에 협동하기도 하고 같기 때문에 경쟁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음과 양은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배타적이기도 하고, 결핍되

16) 여기에 대해서는 김시우, 『예천유학사』, 예천군·예천문화원, 2016, 179-199쪽에 정리해 두어 참고가 된다.

어 있기 때문에 상호 의존적이기도 하다는 것이다.¹⁷⁾

대대론에 기반하여 문화적 측면에서 강을 주목하자는 것이 江岸學의 기본 논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낙동강을 보면 매우 흥미롭다. 이곳에는 기호학과 영남학, 퇴계학과 남명학의 회통이 이루어지고, 실천정신에 바탕한 실용성이 강조되며, 세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보고자 하는 독창성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회통성은 소통과 화합을, 독창성은 개성과 창조를, 실용성은 일상과 생활을 지향하는 강안학의 주요 성격들이다. 강안학은 이러한 요소들이 배타적 관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중성을 지니며 유기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⁸⁾

그렇다면 강안학적 시각에서 예천 지역의 유학은 어떻게 읽히는가. 지정학적 측면에서 예천은 영남 좌도이지만 우도인 문경이나 상주와는 지근의 거리에 있고, 좌도에서는 안동과 밀착되어 있다. 이로 보아 자연스럽게 예안과 안동을 거점으로 하는 퇴계학이 강하게 유입되는 가운데, 상주나 문경처럼 기호학이나 남명학과도 수월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설정한 상주권 강안학의 주요 특징으로 보이는데, 예천 지역에서도 잘 드러난다. 아울러, 임진왜란 등 거국적 위기의 국면을 맞이하여 실천적 태도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두면서 강안학으로서의 예천 학풍을 생각해 보도록 하자.

첫째, 회통성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부분이다. 낙동강은 차안과 피안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경계선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안과 피안은 포구를 이용하여 서로 넘나들면서 상호의 문화를 실어나른다. 이러한 왕래는 산이 갖는 차단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이용한 소통의 기능을 한다. 차안과 피안을 중심으로 等語線이 형성된다는 언어지리학적 측면에서의 연구 결과는 이를 대변하기에 족하다. 바로 이러한 현상은 낙동강이 차안과 피안으로 이루어진 경계선의

17) 정우락, 「강안학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강안학이란 무엇인가』, 역락, 2024, 12쪽.

18) 정우락, 「강안학과 고령 유학에 대한 시론」, 『퇴계학과 유교문화』 4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8.

역할을 하는 동시에, 차안과 피안을 왕래하며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것이다.

일찍이 이규보가 남행을 하여 1196년(고려 명종 26) 상주의 낙강에 배를 띄우고 시회를 연 적이 있고, 그의 시심은 예천의 河豐津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백 번이나 구부러진 푸른 산속에 한가하게 낙동을 지난다. 풀이 깊으니 아직도 이슬이 있고 솔이 고요하니 자연히 바람이 없네. 가을 물은 오리 머리같이 푸르고, 새벽 높은 성성의 피갈이 붉구나. 게을리 노는 손이 四海로 떠도는 한 詩翁인 줄 누가 알까”¹⁹⁾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예천은 이처럼 낙동강 연안에 있었으므로, 외지인들이 드나들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대상으로 수많은 시를 남겼던 곳이었다.

모든 지역이 그러하기는 하지만 혼인 등의 이유로 인근 지역에서 예천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많았다. 예컨대, 李中立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지보로 이주하였고, 張謹은 호서 지역에서 영주를 거쳐 예천으로 이주하였으며, 李愈·李憲·李應은 용인에서 호명으로 이주하였다. 이처럼 기호 지역에서 예천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지역적 회통성이 보이는 가운데, 인근의 예안이나 안동, 영주와 함창 등지에서도 예천으로 이주하게 된다. 이와 함께 권문해는 徐敬德의 제자 許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李珥와 李瑀 형제와 절친하게 지냈으며, 정탁은 이황과 조식의 제자로서 이들의 문인들과 폭넓게 사귀었다. 이로 보아 예천 지역은 퇴계학의 강한 구심력 속에서 기호학 및 남명학과의 회통성 역시 확인된다는 것이다.

둘째, 실용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부분이다. 낙동강은 수운을 통해 물류의 운반 기능을 담당하였고, 이에 따라 그 연안 지역에는 성시가 발달했다. 조선전기의 상주, 조선후기의 대구, 근대 이후의 부산이 그 대표적이다. 그러니까 낙동강은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연안 지역에는 실용주의가 발달하게 된다. 그러나 임진왜란의 경우에서 보듯이 낙동강은 왜적의 주요 침투로가 되면서 의병 활동 역시 왕성하게 일어났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愛民과 憂國의 실천정신이 강안 지역

19)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권6, <行過洛東江>, “百轉青山裏, 閑行過洛東. 草深猶有露, 松靜自無風. 秋水鴨頭綠, 曉霞猩血紅. 誰知倦遊客, 四海一詩翁?”

의 주요 정신역량으로 숙성될 수 있었다.

예천 지역의 실용주의적 학문정신은 權文海의 저작 『大東韻府群玉』에 잘 나타난다. 이 책은 수많은 역사인물이 등장하는 인명사전이자, 중국 발 조선 성어를 집적한 조선한자어사전이며, 초목과 금수를 포괄한 백과전서이다. 이러한 책이 나오게 된 계기로는 새로운 지식에 대한 필요성, 역사적 근거를 고전에서 찾으려는 전거의식의 심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심화된 우리 것에 대한 애정과 지식 욕구, 사실에 대한 고증적 연구의 심화 등을 들 수 있다.²⁰⁾ 여기에 작동한 근본적인 힘은 다른 아닌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괄하고자 하는 실용주의 그것이었다.²¹⁾ 권문해의 아들 權鼈이 『海東雜錄』을 편찬한 것도 아버지의 이러한 학문사상을 이어받은 것이라 하겠다.

인간의 일상을 중시하는 실용주의는 실천성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실천은 그 범위가 대단히 넓다고 하겠는데, 개인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인 것도 있다. 예천 지역에는 孝烈을 특별히 강조하였으며, 권별이 『해동잡록』에서 절의를 지킨 사람을 특기하면서 인물편 말미에 효자편을 두어 그 사례를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특히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李軸, 權旭, 禹伏龍 등이 용궁에서 의병을 일으킨 것이나, 이순신과 곽재우, 그리고 김덕령이 정치적 위기에 처하였을 때 이를 적극 구원한 정탁도 실용주의에 기반한 실천성이 위기적 국면을 맞아 발휘된 것으로 보인다. 정탁의 경우는 다음 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강안학의 또 다른 특징은 독창성을 들 수 있다. 낙동강 연안 지역은 회통성과 실용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학문역량을 발휘하지만, 여기서 더욱 나아가 독창적인 면 역시 보유하고 있다. 초기 양명학을 도입한 상주의 盧守愼, 『心經』을 창의적으로 재편한 성주의 鄭述, 理氣經緯說을 천명한

20) 박인호, 『『해동잡록』에 나타난 권별의 역사인식』, 『퇴계학과 유교문화』 52,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 참조.

21) 洪汝河는 이 책을 들어 “나는 일찍이 우리나라의 찬술을 평할 때 초간의 이 책을 제일로 여겼다.[余嘗評東國撰述, 以草澗此書, 爲第一](洪汝河, 『木齋集』 권6, <竹所權公海東雜錄後跋>)”라고 하였다.

인동의 張顯光, 心卽理說을 주장한 성주의 李震相은 그 대표적이다. 퇴계학이 강고하게 자리하고 있는 영남의 사상계로서 이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고, 사실 구체적인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강안 지역의 독창성은 이 지역의 특성 가운데 하나인 회통성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인다. 퇴계학의 자장 속에서도 오히려 강안학적 능동성을 보이면서, 이것이 독창성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예천 지역의 경우, 독창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이 역시 예천 지역의 사상적 경향을 읽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퇴계학과라 할 수 있는 인물 가운데, 문집이나 저서를 5권 이상 낸 사람으로는 권문해나 정탁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는 사색이 이 지역에서는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도 ‘퇴계학과 관련한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사람이 거의 없다’²²⁾라고 하거나, ‘성리학의 이론적 측면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기거나 지역학계를 주도적으로 이끌만한 세력을 형성한 이는 적었다’²³⁾고 평가할 수 있었다.

대대론을 기반으로 하는 江岸學的 논리에 따라 예천 지역을 살펴보면, 기호학과 영남학, 퇴계학과 남명학의 회통성, 박학에 바탕한 실천정신을 지닌 실용성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의미하는 독창성은 약화되어 있다. 회통성과 실용성 가운데서도 실용성이 더욱 강조된다. 가정을 중심으로 효제에 힘쓰고 동약을 통한 지역사회의 질서와 화합을 중시하면서도, 국가적 재난의 시기에는 의병 활동을 통해 강력한 실천력을 보였다. 예천 지역의 이러한 특성은 다른 낙동강 연안 지역과 일정한 연대를 이루며 나타났다. 또한 독창성에 대한 약화는 이 지역이 퇴계학에 대한 묵수적 태도를 지녔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2) 황위주, 앞의 논문, 32쪽 참조.

23) 장운수, 앞의 논문, 312쪽 참조.

IV. 정탁 학문의 강안학적 특성

16세기 예천 지역의 유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본 장에서는 정탁의 경우를 주목하고자 한다. 정탁이 이 시대 이 지역을 대표하는 유교 지식인이기도 하지만, 강안학적 시각에서 16세기 예천 지역의 학문적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강안학은 회통성, 실용성, 독창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 가운데 예천 지역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는 독창성은 약화되어 있는 반면, 회통성과 실용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측면에서 16세기의 예천 학풍과 정탁의 학문적 성격은 자연스럽게 친연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제 여기에 대한 구체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정탁의 학문에서 회통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질적으로 보이는 두 요소가 서로 만나 새로운 차원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회통성의 본령이다. 그러나 이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통성은 다층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고, 두 이질적인 성향을 가진 것의 만남으로부터 회통은 시작한다. 우선 정탁이 具思孟 등 기호 학인들과도 원만하게 지내면서 기호학과 영남학의 회통적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때문에 <행장>에서는, “공은 무너지는 세파 속에서 우뚝 서서 시종 편당을 짓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쪽을 출입하거나 저쪽을 출입하거나 구분 없이 무릇 어진 사람이라면 모두 형제처럼 친애하였다”²⁴⁾라고 할 수 있었다.

정탁의 회통성은 퇴계학과 남명학의 측면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연보>에 의하면, 그의 학문은 중부 鄭以興으로부터 시작하였다고 했으니 가학이 그 출발점이다. 이어 17세조에는, “퇴계 이 선생의 문하에 유학하였다. 선생은 어린 나이에 문하에 올라 심학의 요체를 듣고서 실천의 공을 더하여 口耳之學을 일삼지 않았다.”²⁵⁾라고 하였고, 36세조에는, “옳게서

24) 黃汝一, 『海月集』 권13, <有明朝鮮國忠勤貞亮扈聖功臣, 大匡輔國崇祿大夫, 領中樞府事, 西原府院君藥圃鄭先生行狀>, “公卓然自立於頽波之中, 終始不爲黨. 是以, 無出入彼此, 凡其賢者, 莫不親愛之如兄弟.”

진주교수를 제수받았다. 선생이 진주에 있을 때 남명 조 선생을 따라서 놀았는데 깊이 추허함을 입었고, 壁立千仞의 기상을 볼 수 있었다.”²⁶⁾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퇴계집』에는 이황이 정탁에게 보낸 편지가 16통, 『남명집』에는 조식이 정탁에게 보낸 편지가 3통이 실려 있을 수 있었다. 이처럼 정탁은 중부 정이흥을 통해 학문적 기반을 닦으면서, 이황의 심학과 조식의 기상을 흡수하면서 자신의 학문을 성취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자료에서 이러한 사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자.

一毫不可欺	털끝만큼도 속여서는 안 되나니
謹獨斯爲貴	근독이 가장 귀중한 것이라네
幽明責與非	유명으로 나누는 곳을 따져서 살피야
始得免人鬼	비로소 귀신됨을 면하게 되리라 ²⁷⁾

정탁이 지은 <閑居感興> 12수 가운데 제8수이다. 일찍이 이황은 “謹獨이 일상의 친절한 공부라는 것은 참으로 確論입니다”²⁸⁾라고 하거나, “戒愼·恐懼와 謹獨은 中庸章句에서 나누어 두 일로 여겼다.”²⁹⁾라고 하는 등 근독의 중요성을 특기한 바 있다. 그리고 曹植은 <神明舍圖>에서 鬼와 夢을 원곽의 북쪽 바깥에 설정해 두었다. 이는 신명이 사는 원곽 안이 人과 覺의 세계라는 것을 보임으로써, 幽明에 따른 인귀의 구분이 명확하다는 것을 적시하였다. 『學記類編』에서 “誠意가 바로 人鬼關”³⁰⁾이

25) 『藥圃先生年譜』 17세조, “游退溪李先生之門. 先生卯角登門, 得聞心學之要, 加踐實之功, 不以口耳爲事.”

26) 『藥圃先生年譜』 17세조, “移授晉州教授. 先生在晉日, 從南冥曹先生游, 深被推許, 見得壁立千仞氣象.”

27) 鄭琢, 『藥圃續集』 권1, <閑居感興> 其八.

28) 李滉, 『退溪集』 권14, <答南時甫>, “謹獨 爲日用親切工夫, 此固爲確論.”

29) 李滉, 『退溪集』 권21, <答李剛而問目>, “戒懼與謹獨, 中庸章句, 分爲兩事.”

30) 曹植, 『學記類編』, “朱子曰, 誠意是人鬼關, 過此一關, 方會進, 格物是夢覺關.” 주자는 致知와 誠意는 배우는 자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두 개의 관문이라 생각했다. 즉 치지 공부는 꿈을 꾸느냐 잠을 깨느냐의 관문(夢覺關)이며, 성의 공부는 선한 사람이 되느냐 악한 사람이 되느냐의 관문(善惡關)이라는 것이다. 이로 볼 때 치지의 관문을

라고 한 주자의 말을 인용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이황과 조식은 주자학의 논리에 따라 계신, 공구, 근독, 성의 등의 수양론적 개념을 통해 끊임없이 참된 인간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황과 조식의 생각은 정탁의 <한거감흥>에 두루 나타난다. 위의 작품 기·승구에서는 이황이 南彦經과 李楨 등에게 말했던 근독의 중요성과, 전·결구에서는 조식이 <신명사도>를 통해 제시했던 人鬼의 문제와 결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탁의 사유체계와 시적 상상력에서는 퇴계학과 남명학의 회통 지점이 구체적으로 발견된다. 같은 작품 제6수에서, “마음의 기미에 선과 악이 있으니, 성실이 가장 귀중한 것이라네. 하나의 관문이 지척 사이지만, 천리만큼이나 人과 鬼는 구별된다네.”³¹⁾라고 한 데서도 이러한 생각은 꾸준히 읽힌다.

둘째, 정탁의 학문에서 실용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실용성은 박학에 바탕한 실천정신에 기반한다. 실용성은 입으로 천리나 논하는 공허한 이론 위주의 학문을 배격한다. 이 때문에 이것은 항상 생활과 결합되어 나타나기 마련이다. 鄭蘊이 정탁의 묘지명에서, “天文과 地理와 象數와 兵家에 관한 서적들을 두루 섭렵하여 그 귀취점을 터득하였으며, 선비가 兵法를 알지 못하면 큰 임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기고 八陣法과 六花法 등에 더욱 관심을 두었다.”³²⁾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의 박학에 바탕한 실천정신을 가장 적확하게 지적한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탁의 실용주의는 예천 고평을 중심으로 한 동계 결성에도 분명히 나타난다. 임진왜란 이후 양반과 평민의 上下合契가 조직되어 향촌사회

통과했으면 꿈을 깬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꿈을 꾸고 있는 것이며, 성의의 관문을 통과했으면 선한 사람이요 그렇지 못하면 악한 사람이라는 논지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朱子語類』 권15, 大學二經下 참조.

31) 鄭琢, 『藥圃續集』 권1, <閒居感興> 其六, “意幾有善惡, 誠之最爲貴. 一關咫尺間, 千里別人鬼.”

32) 鄭蘊, 『桐溪集』 권4, <貞簡公西原府院君鄭公墓誌銘 并序>, “至於天文地理象數兵家之流, 無不旁通涉獵, 得其歸趣, 以爲士不知兵, 不足以當大任, 故於八陣六花等法, 尤加意焉.”

를 경영하기도 했다. 유성룡이 『징비록』에서 말하고 있듯이 부자와 부부간에 서로 잡아먹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 특단의 합력이 필요하였던 시기임을 자각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탁은 향인 孫興智(1556-1619)의 권유로 동계를 만들었던바, 高坪洞契가 그것이다. 조약문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동계는 『藍田呂氏鄉約』에 기반하여 당시의 사정을 알맞게 반영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洞契約條>는 2조로 나누어지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권면조: 충심을 다해 임금을 섬길 것(盡忠事君), 정성을 다하여 부모를 섬길 것(至誠事親), 자신의 몸을 잊고 나라를 위해 죽을 것(忘身殉國), 倡義해서 복수할 것(倡義復讐), 귀한 이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한 사람을 존경할 것(貴貴尊尊), 노인을 노인으로 모시고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할 것(老老長長), 이웃과 친목하고 친족과 화목할 것(睦鄰和族), 공적인 일을 먼저 하고 사적인 일을 나중에 할 것(先公後私), 부세를 성실히 바칠 것(愼納賦稅), 의로운 행동을 할 때 용감할 것(勇於爲義), 남의 은밀한 비밀을 숨겨줄 것(秘發陰私)
- 2) 금제조: 조정의 시비를 멋대로 논의하는 것(妄議朝廷是非), 고을의 득실을 함부로 논하는 것(輕論州縣得失), 젊은이가 어른을 능멸하는 것(以少凌長), 강자가 약자를 업신여기는 것(以彊凌弱), 친척 간에 화목하지 않는 것(親戚不睦), 이웃 간에 화평하지 않는 것(鄰里不和), 관령을 어기고 범하는 것(違犯官令),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것(侮慢長上), 위급하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지 않는 것(不救急難), 금지하는 材木을 함부로 베는 것(擅伐禁林), 무덤가의 나무를 함부로 베는 것(擅樵丘墓), 농지의 경계를 잠식하는 것(侵占田疆), 농작물을 심은 밭에 放牧하는 것(放牧禾稼), 남의 재물을 약탈하는 것(攘奪人財), 술을 마냥 마시고 시끄럽게 싸우는 것(縱酒喧競), 치고받고 싸우며 욕하는 것(歐鬪罵詈), 약속한 모임에 늦게 도착하는 것(期會晚到), 이유 없이 불참하는 것(無緣不參).

권면조는 서로 권면하고 준수하여 놓지 말아야 하는 것들로 도합 11항목이고, 금제조는 서로 경계하여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로 도합 18항목이다. 부세를 성실히 하거나,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싸우지 말 것 등 매우 구체적인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약포는 이를 講會할 때마다 左右司로 하여금 읽도록 하여 거듭 뜻을 밝히고 지켜나가자고 했다. 범

할 때 처벌이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정탁의 유연성이다. 어떤 사람이 주자가 이미 『藍田呂氏鄉約』을 참고하여 모든 것을 갖추어 더하고 뺄 것이 없다고 하자, 정탁은 “고금에 따라 마땅함의 기준이 서로 다르고 세속에서 숭상하는 기준도 저절로 다르며, 難易의 형세도 달라 점점 변하게 된다.”³³⁾라고 하면서, 기본적인 강령은 취하되 세부적인 부분은 당대의 현실에 맞아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여기서 주자학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했던 정탁의 유연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정탁의 실용주의는 임란을 거치면서 강한 실천성으로 나타났다. 미발시의 戒懼·存養과 이발시의 謹獨·省察이라는 주자학적 수양론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임진왜란과 같은 국가적 위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안으로는 관리의 임면·상벌·군사업무 등을, 밖으로는 대명 외교를 통한 국란 극복 방안을 제시하는 등 실무적 역량을 보였다. 더욱 나아가 『武經總要』나 『紀效新書』로 보이는 병서를 수용하는 등 실천성을 극대화해 나갔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 논의³⁴⁾에서 이미 자세하게 다루었으므로 부언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보듯이 예천 지역의 강안학적 특징이 정탁의 학문에 그대로 적용되어 나타났다. 정탁의 학문은 중부 鄭以興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그 출발점이 가학이라 하겠다. 이어 17세와 36세에 이황과 조식을 만나면서 회통성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서 정탁의 회통성은 주로 퇴계학과 남명학의 회통으로 나타났는데, 퇴계학에서의 謹獨 문제를, 남명학에서의 人鬼 문제를 수용하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박학을 바탕으로 한 실용주의는 실천성으로 구체화되었다. 고평동계와 임란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실무적 실천 역량은 이를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33) 鄭琢, 『藥圃集』 권3, <書約條後>, “以古今異宜, 俗尚自別, 難易殊勢, 轉移有漸.”

34) 여기에 대해서는 황만기, 「정탁의 병법 수용 양상 연구」, 『영남학』 25,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4, 참조.

V. 요약과 남은 문제들

본고는 16세기 예천 지역의 학풍과 정탁의 학문을 다루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16세기는 사회기를 거치면서 사림파가 수난을 맞기도 하지만, 이러한 험난한 경험을 통해 이들의 사상은 오히려 예각화될 수 있었다. 여말선초 정몽주의 학문사상이 김종직, 김굉필 등을 거치면서 도학으로 성장했던 일련의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은 확인된다. 16세기 벽두에 출생한 이황과 조식이 영남의 양대 산맥을 이룩하면서 영남의 학문사상은 더욱 고도화되어 갔고, 이들의 문하생들이 활동하면서 더욱 풍성해졌다. 이익이 당대의 영남을 들어 ‘文明之極’이라 한 것도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예천은 낙동강 본류가 시작하는 그 연안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가산과 내성천 등의 산수를 거느리며 유교문화를 만들어 갔다. 정몽주의 제자인 호명의 조용, 조용의 제자인 보문의 윤상으로 이어지는 성리학 계보를 만들며 예천의 성리학은 본격화된다. 이황이 조용과 윤상을 들어 “성리의 연원은 알기가 쉽지 않은데, 예천은 두 공의 이름을 일컫고 있네.”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의 발언이다. 이황의 어머니 춘천박씨 집안이 예천에 있어, 이황의 친인척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세거 혹은 이주할 수 있기도 했다.

강안학은 회통성, 실용성, 독창성이라는 학문 특성을 지닌다. 이 가운데 예천 지역은 회통성과 실용성이 강조되고 독창성은 비교적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황의 친인척이 있고, 그의 제자들이 세거 혹은 유입되기도 하지만 예천에서는 퇴계학을 천착하며 이기심성론을 깊게 받아들여 탐구한 흔적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 지역에서는 이보다도 기호학, 혹은 남명학과 일정한 연대를 이루며 회통해 갔고, 박학에 입각한 실천정신으로 실용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권문해와 권별 부자가 보여주었던 『대동운부군옥』과 『해동잡록』은 그 대표적인 성과물이었다.

16세기 예천 강안학을 대변하는 유교 지식인은 정탁이다. 그 역시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는 독창성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

왔다. 오히려 이황과 조식의 제자가 되면서 퇴남학의 회통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여기에 대하여 이현일은 『약포집』 서문에서 治心과 養性의 요결, 出處와 行藏의 의리로 요약하기도 했다.³⁵⁾ 특히 고평동계에서 <권면조>와 <금제조>에서 보여준 구체적 사례와 임진왜란 과정에서 보여준 실무역량은 정탁 학문의 실용성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이라 하지 아닐 수 없었다.

이제 본 논의로 도출할 수 있는 남은 과제를 생각해 보자. 이상의 논의로 우리는 16세기 예천 지역의 학풍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보다 정치하게 점검되어 마땅하다. 예컨대 회통성의 경우, 예천 지역 유교 지식인들이 혼인 등의 이유로 상호 소통하면서 회통의 초보적 단계를 확보하고, 여기서 더욱 나아가 정탁의 경우처럼 근독과 인귀의 문제로 퇴남학에 대한 구체적 회통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여기서 보듯이 회통성에는 일련의 단계가 있었을 것인바, 예천 지역에서 보이는 이러한 회통성의 단계를 보다 섬세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통은 和會疏通을 줄인 표현으로, 표면적으로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것을 하나의 의미로 융화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최치원이 <鸞郎碑序>에서 풍류도를 들어 유불선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거나, 박지원의 사상에서 양명학적이면서도 동시에 도가철학일 수 있는 점이 보인다거나, 장자 철학에 절대와 상대, 현실과 이상, 체득과 실현이 소통한다는 주장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회통성은 이질성을 가진 두 요소의 소통과 융화를 계기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대한 연구는 예천 유학의 일국면을 더욱 정치하게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강안학의 전반적 성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정탁의 학문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 역시 시도할 만하다. 지금까지 정탁에 대한 논의는 임진란에 대한 인식과 군사활동 등 현실대응에 대한 것이 주종을 이룬다. 이는 정탁의 학문이 박학에 바탕한 실천정신이 농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러나 그가 남긴 문집에는

35) 李玄逸, 『葛庵集』 권20, <藥圃鄭貞簡公文集序> 참조.

다양한 장소성을 확보하고 있다. 『용사일기』 등에 나타나는 주요 공간은 말할 것도 없고, 제영시에 보이는 仙夢臺나 望湖堂 등의 문학경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을 세밀하게 조사하면 정탁의 사물 인식 방법을 더욱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료 발굴 역시 시급하다. 鄭柱元이 지은 <淸州鄭氏 世德歌>라는 가사 작품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이 작품은 들머리에서, “嗚呼라, 後孫들아! 先祖世德 들어보소. 날날이 不肖孱孫, 世德贊揚 不當하나, 散在各處 農民子孫, 이런 말도 못 들으면, 祖先事業 어이 알며, 世代派係 分間할까?”라고 하면서 선조의 세덕을 자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했다. 정탁에 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貞簡公 杖屨所에, 數間屋子 지어내니, 挹湖亭이 이 아닌가! 鄭東溪 記하실 적에, 瞻揖大君子 遺躅이라 하셨다. 散在峽谷 愚迷子孫, 先所나 알아보고, 道正院宇 推進하여, 瞻拜하고 景仰하니, 先廟朝令 畫眞像은, 儼然在座 嚴肅하고, 英廟朝 畫像贊은, 千古流傳 重하도다.”³⁶⁾라고 하면서 읍호정과 도정서원, 그리고 영정 등 정탁에 대한 유적과 유물을 다각도로 제시한다.

낙동강 연안에 위치한 예천 지역의 유교 지식인들은 박학에 바탕한 실천정신이 이들 학문의 第一義이다. 이는 이 지역의 학풍이 실용성에 입각한 학문정신에 투철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예천 지역의 실용성에 대한 연원과 결과 역시 새롭게 따져보아야 할 문제다. 본 논의가 강안학의 보편성 속에서 진행되지만, 예천 지역의 독자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낙동강 연안 지역을 좌우와 상하로 나누어보면, 지역에 따라 상이한 특성이 나타난다. 이러한 상이성은 독자성을 발휘하는 기제가 되므로 이를 통해 예천의 학문은 더욱 정채를 발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은 2024년 05월 22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05월 27일부터 06월 1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06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36) 鄭柱元, <淸州鄭氏世德歌>(筆寫本)

참고문헌

- 申弼欽, 『泉齋集』
 柳致堦, 『東林集』
 尹祥, 『別洞集』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李玄逸, 『葛庵集』
 李滉, 『退溪集』
 鄭蘊, 『桐溪集』
 정탁(황만기 외 역), 『국역 약포집』(1-3), 안동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
 鄭琢, 『藥圃集』
 鄭必奎, 『魯庵集』
 曹植, 『學記類編』,
 淸州鄭氏, 『東窩世稿』, 大譜社, 1992
 洪汝河, 『木齋集』
 黃汝一, 『海月集』
 『新增東國輿地勝覽』
 『朱子語類』
- 강문식, 「임진왜란기 정탁의 대명 외교 활동」, 『약포 정탁』, 예문서원, 2016, 223~259쪽.
 권경열, 「약포 정탁의 교유관계와 학문 형성 배경」, 『약포 정탁』, 예문서원, 2016, 87~104쪽.
 김정수, 「남명학과와 퇴계학과 사이의 정탁」, 『약포 정탁』, 예문서원, 2016, 105~140쪽.
 김낙진, 「약포(藥圃) 정탁(鄭琢)의 정주학(程朱學) 수용 양상」, 『남명학연구』 24,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7, 83~108쪽.
 김원준, 「임란기 전란 극복을 위한 약포의 대응 방식-임란기 산문을 중심으로」, 『약포 정탁』, 예문서원, 2016, 187~231쪽.
 김정운, 「정탁의 『용사일기』와 왜란 극복 활동」, 『약포 정탁』, 예문서원, 2016.

- 박근노, 「약포 정탁의 문학에 나타난 우국익식: 상소활동과 임란체험의 시적 형상화를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박익환, 「약포 정탁의 생애와 임란극복 공적」, 『진주문화』 17, 진주교육대학교 부설 진주문화권연구소, 2003, 3~32쪽.
- 박인호, 「『해동잡록』에 나타난 권별의 역사인식」, 『퇴계학과 유교문화』 52,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 83~118쪽.
- 여운필, 「약포 정탁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6, 한국학시학회, 2001, 53~81쪽.
- 장윤수, 「예천지역 성리학계의 지형도」, 『퇴계학과 유교문화』 59,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6, 301~340쪽.
- 정병호, 「약포 정탁의 현실인식과 대응—『약포집』 소재 상소문을 대상으로」, 『동양예학』 31, 동양예학회, 2014, 109~134쪽.
- 정우락 외, 『강안학이란 무엇인가』, 역락, 2024.
- 정우락, 「강안학과 고령 유학에 대한 시론」, 『퇴계학과 유교문화』 4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8, 39~94쪽.
- 정우락, 『영남 한문학과 물의 문화학』, 역락, 2022.
- 정해은, 「임진왜란기 약포 정탁의 군사 활동과 전쟁기록」, 『이순신연구논총』 22,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4, 301~335쪽.
- 진갑근, 「약포 정탁 시에서의 用事 활용 양상연구—경서를 중심으로」, 『국학연구론총』 32, 태민국학연구원, 2023, 41~74쪽.
- 최고경, 「약포(藥圃) 정탁(鄭琢)의 전쟁시를 통한 임진전쟁에 대한 인식분석」, 『군사』 11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1, 229~254쪽.
- 추제협, 「약포 정탁의 삶과 철학」, 『약포 정탁』, 예문서원, 2016, 63~85쪽.
- 추제협, 「송정 조용의 삶과 학문적 위상」, 『정간공 약포 정탁선생 탄신 제498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2024, 54~68쪽.
- 황만기, 「정탁의 병법 수용 양상 연구」, 『영남학』 25,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4, 313~337쪽.
- 황위주, 「예천지역의 퇴계학맥」, 『퇴계학과 유교문화』 28,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0, 113~148쪽.

Abstract

The Academic Trends and Yakpo Jeongtak(藥圃 鄭琢) in the 16th Century Yecheon Region

Jeong, Woo-lak

This study is designed to address the academic climate of the sixteenth-century Yecheon region and the study of Yakpo Jeongtak. The sixteenth century was a period of tribulation for the Sarim school, but their ideas were sharpened by these harsh experiences. Yecheon is located at the headwaters of the mainstream of the Nakdong River, and it was through the mountains of Hakgasan and Naesungcheon that Confucian culture was shaped. Yecheon's Neo-Confucianism begins in earnest by creating a genealogy of Neo-Confucianism that leads to Cho Yong of Ho-myeong, a disciple of Jeong Mong-ju, and the Yunsang of Bomun, a disciple of Cho Yong. It is in this context that Lee Hwang said, "It is not easy to know the origin of Seong-ri, but Yecheon refers to the names of the two."

Ganganhak(江岸學) has academic characteristics such as communicative, practical, and originality. Among them, in the Yecheon area, communicative and practicality are emphasized, and originality seems to have been relatively weakened. Although there is a relative of Lee Hwang and his disciples are sometimes counted or introduced, in Yecheon, there are few traces of exploring Toegye-hak by deeply accepting the theory of selfishness. The Confucian intellectual who represents Yecheon Ganganhak in the 16th century is Jeong Tak. He showed little interest in the originality of a new perception of the world. Rather, he became a disciple of Lee Hwang and Cho Shik and

most actively demonstrated the communicative of the Toe·nam studies. In particular, the specific examples shown in Gopyeongdonggye(高坪洞契)'s <work hard items(勸勉條)> and <prohibited items(禁制條)>, and the practical skills demonstrated during the Imjin War, were the most practical aspects of the study of Jeongtak.

keywords :

16th century, Yecheon region, Yakpo Jeongtak, Nakdong River coast, Neo-Confucian genealogy, Ganganhak(江岸學), practicality, Gopyeongdonggye(高坪洞契).